《Up Against the Walls!》

더페이지갤러리 8.26~10.30

콩소르시움 미술관 현대미술 100년을 향한 첫 장

김승덕, 프랑크 고트로 콩소르시움 공동 기획자
번역 **김소정**

이 글은 콩소르시엄의 공동 디렉터이자 이번 전시의 공동 기획자인 김승덕과 프랑크 고트로가 '우리(we)'라는 목소리로 함께 쓴 글이다. 월간미술은 오래전부터 김승덕의 글을 기꺼이 실어온 매체다. 당시 김승덕이 젊은 작가들과 나눈 인터뷰를 실은 미술잡지는 월간미술이 유일했고, 그 가운데 몇몇은 이제 스타 작가가 되었다. 여러분도 그들의 이름을 알 것이다![1]

《Up Against the Walls!》는 프랑스 디종에서 1977년에 문을 연 콩소르시움의 개관 50주년을 앞두고 마련됐다. 내년 50주년을 맞이하여 한 해 앞서 서울에서 선보이는 자리다. 서울은 그동안 우리가 프랑스와 해외에서 이어온 모험과 실험적인 활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친근한 도시이자, 우리에게는 일종의 '뒷마당'과도 같은 곳이다.

반세기를 기념한다는 것은 마치 반쯤 비어 있는 잔을 마주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이정표를 세웠다. 1977 – 2027 – 2077. 지나온 50년과 앞으로의 50년, 즉 현대미술의 100년이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오랜 동료이자 동반자였던 프랑수아 모를레, 댄 그레이엄, 온 카와라, 로렌스 와이너, 솔 르윗을 비롯해 수많은 소중한 작가들을 떠나보냈다. 향수와 슬픔을 전면에 불러내는 이 작가들을 떠올리는 것이 '기념'의 방식은 아닐 것이다. 이제 미래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미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아직 알지 못한다.

서울로 돌아오는 일 역시 언제나 물음표를 남긴다. 이곳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전히 상업과 소비문화가 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있을까? 이제는 미술이 그 역할을 맡고 있을까? 이번 전시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정서적이고 실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동시에 전시는 콩소르시움의 '50/50 기념행사'를 예고하는 일종의 서곡이자, 지난 50년과 앞으로의 50년을 잇는 글로벌 프로젝트의 '첫 페이지'이기도 하다.





왼쪽 페이지 양헬라 페라리
〈Rehearsal〉 린넨에 유채,
삼단화(왼쪽부터) 494×141cm,
445×204cm, 494×141cm 2026
사진: 전병철
제공: 작가, Galerie Marguo
위 이사벨라 두크로트 〈Terra〉(사진 가운데) 종이 위에 종이 콜라주, 안료, 목탄 266×590cm 2026, 〈Vaso〉(사진 왼쪽과 오른쪽) 종이 위에 종이 콜라주, 안료, 목탄 각 270×199cm 2026
사진: Joel Moritz
제공: 작가, Galerie Gisela Capitain

전시의 출발점은 '벽'이다. 벽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작품에 주목하는 전시를 더페이지갤러리가 제안하면서 이 협업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는 사실 상업 갤러리에서는 비교적 접하기 어려운 형식이다. 그러나 벽을 의식한다는 개념은 작품, 공간, 전시 형식 사이의 관계를 실험해 온 콩소르시움의 오랜 역사와도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 전시에서 벽은 더 이상 작품이 설치되는 배경에 머물지 않는다. 벽화와 벽지에서 포스터, 회화, 영상에 이르기까지 작품들은 벽을 적극적으로 점유하고 벽의 일부가 되거나, 때로는 벽 전체를 장악하면서 공간 자체를 변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벽은 작품과 건축, 회화와 장식, 이미지와 공간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시 제목은 1960년대 후반 뉴욕에서 일어났던 급진적인 반문화와도 교차된다. 역사적 맥락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는 미술과 정치, 제도와 일상 사이의 경계를 거부했던 예술·정치 그룹 '블랙 마스크(Black Mask)'와, 그로부터 파생된 반문화 집단 '업 어게인스트 더 월 마더퍼커스(Up Against the Wall Motherfuckers)'를 들 수 있다. 동시에 "up against the wall(벽과 맞서라)"이라는 말에는 명령형 표현이 지닌 긴장감과 도발적인 힘이 담겨 있다. 누군가를 벽으로 몰아붙이는 강압적인 명령이다. 우리에게 벽은 결코 중립적이거나 우호적인 표면이 아니다. 벽은 작품을 제한하고 가로막는 '적(enemy)'인 동시에, 작품이 공간으로 확장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작품의 일부가 되게 하는 능동적인 '협업자(collaborative partner)'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제목에는 벽으로 몰린 상황에서의 수세적인 의미와, 벽에 맞서면서 동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작품의 일부로 바꿔나가는 능동적인 태도가 모두 담겨있다.

1 편집자 주) 김승덕은 1990년~2000년대 월간미술의 해외통신원으로 활동하며 지면을 통해 실비 플뢰리, 마우리치오 카텔란, 피에르 위그, 쿠사마 야요이 등의 작가를 국내에 소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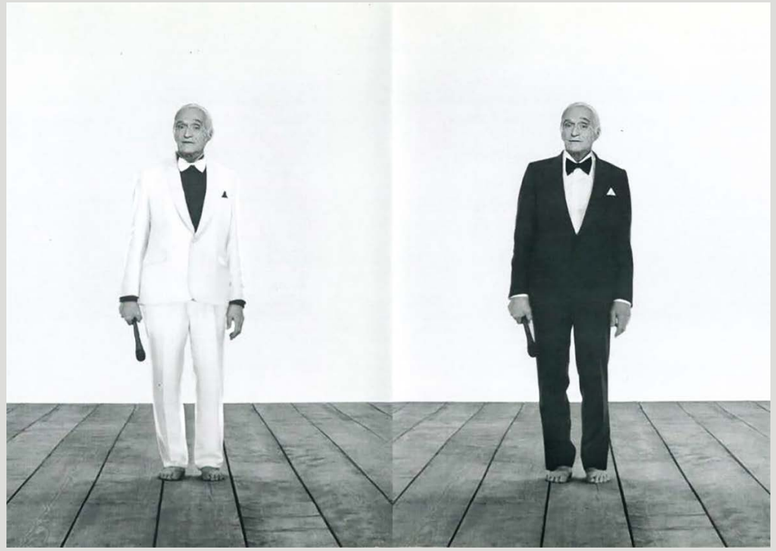
아래 M/M 파리 [Mathias Augustyniak, Michael Amzalag] 〈Arcanes M/Majeurs (Nuit)〉(사진 왼쪽) 아트 포스터 #109, 〈Arcanes M/Majeurs (Jour)〉(사진 오른쪽) 아트 포스터 #110 종이에 5색 실크스크린 각 176×120cm 에디션(번호 없음) 가변 설치 2026
사진: 전병철 제공: 작가
오른쪽 페이지 나탈리 뒤 파스키에 〈Untitled〉 캔버스에 유채, 액자 25×35cm (3) 2026
사진: 전병철
제공: 작가, The Page Gallery

전시는 콩소르시움과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함께한 작가들 가운데 아홉 명을 소개한다. 이는 지난 시간을 되짚어보는 여정이면서 과거의 새로운 이미지와 오늘의 밝은 풍경을 함께 품는 장면이기도 하다. 1983년부터 20회가 넘게 콩소르시움 전시에 참여해 온 존 암리더(John Armleder)부터, 2026년에 콩소르시움 프로그램에 합류해 현재 아카데미 콩티에서 미술관의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는 앙헬라 페라리(Ángela Ferrari)까지, 이들은 세대가 다르고 국적과 작업 방식도 매우 다양하다. 각 작가는 자신만의 언어로 벽을 해석하여 이를 자신의 작업 안으로 끌어들인다. 존 암리더와 실비 플뢰리(Sylvie Fleury)는 오랫동안 벽을 중심으로 작업해 온 작가들로, 이번 전시공간에서도 그 탐구를 이어간다. 나탈리 뒤 파스키에(Nathalie du Pasquier)는 기하학적인 벽화 작업 및 그 위에 놓인 소규모 회화를 하나의 구성으로 연결한다. 비비안 장(Vivien Zhang)은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한 벽지를 바탕으로 그 위에 회화를 설치하고, M/M 파리(M/M Paris)는 두 전시 공간을 잇는 복도의 양 벽을 포스터로 채워 통로 자체를 하나의 이미지 공간으로 바꾼다. 우고 론디노네(Ugo Rondinone)는 고인이 된 연인이자 동료 작가였던 존 조르노(John Giorno)가 「Thanx 4 Nothing」이라는 시를 낭송하는 영상을 서로 마주 보는 두 벽에 투사한다. 하나의 목소리와 두 개의 이미지가 공간 전체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이사벨라 두크로트(Isabella Ducrot)의 대형 종이 작업, 앙헬라 페라리의 기념비적인 삼면화, 장-마리 아프리우(Jean-Marie Appriou)의 조각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벽과 공간에 개입하고 대화를 나누며 전시의 풍경을 역동적으로 완성한다.

한편 전시는 작가들의 현재 작업을 서울이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가져오는 동시에 미술관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사유하는 창구가 된다. 이는 미술관이라는 물리적 장소를 넘어 여러 도시와 기관에서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콩소르시움의 실천과 공명하며, 지금 이곳에는 "무엇이 감돌고 있는가?"에 응답하는, 즉 현재의 시대정신(Zeitgeist)에 반응해 온 미술관의 행보와도 연결된다.









50년이면 역사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히 긴 시간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역사를 써왔을까? 역사책에 기록될 영광스러운 순간들의 몇 장면일까? 연도를 따져보는 일은 흥미롭다. 우리는 세기가 바뀌던 무렵, 동네 가게들이 '2000 헤어컷', '베이커리 2000' 같은 이름을 내걸었던 것을 기억한다. 2000이라는 숫자가 미래와 진보, 새로움과 혁신을 대표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2000년이 되면 우리가 비행접시를 몰고 다니고, 식사 대신 알약을 먹게 될 거라는 이야기도 듣지 않았는가! 연도는 사람들이 활동해 온 햇수를 내세워 자신의 역량을 증명할 때도 유용하다. 예를 들어 많은 가게들이 간판에 'Since 2010'이라고 적어놓는다. 그렇다면 우리도 콩소르시움 이름 옆에 'Since 1977'을 새겨보자! 미술관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무언가를 하고 있다. 공룡도 사라졌다! 우리도 그래야 할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래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을 돌에 새겨놓고 영원히 바꾸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왼쪽 페이지
위 우고 론디노네 〈thanx 4 nothing〉(스틸) 흑백 필름, 스테레오 사운드 19분 20초 반복 재생 2013
제공: Galerie Eva Presenhuber, Studio Rondinone
아래 존 암리더 〈Untitled〉(벽지) 벽에 수채 피그먼트, 장소특정적 설치 가변 크기 2026, 〈Untitled (FS 203)〉 트럭 스포일러(사진 왼쪽) 112×164×30cm, 캔버스에 아크릴릭(사진 오른쪽) 305×183cm 1988 사진: 전병철
제공: John Armleder Studio
아래 비비안 장 〈Grid Method (Butterfly Choreography)〉 (사진 가운데) 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 스프레이 페인트 200×200cm 개인 소장 사진: Joel Moritz
제공: 작가, Pilar Corrias

우리 호모 사피엔스 공동체는 새로운 종의 등장과 함께 하나의 분기점을 맞을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스스로를 다른 존재, 새로운 종이라고 여기는 아이들의 공동체가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우리의 여정에 합류시키고, 그들에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목소리와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 2027년 이후, 콩소르시움의 미술관 이사회에는 14~16세의 아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미술관의 미래에 대해 투표하게 될 것이다. 이 아이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또는 미술 워크숍에 참여하며 미술관을 방문하고 콩소르시움과 함께 성장해 왔다. 이들은 서로 다른 형식과 미학이 뒤섞인 다양한 전시를 접하면서 새로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또 다른 계획도 있다. 지난 50년의 끝자락에는 지구온난화와 더욱 잦아진 폭염이라는 문제가 놓여 있다. 그 결과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콩소르시움 건물은 이제 직원들에게도, 관람객들에게도, 작품들에도 더 이상 적합한 장소가 되지 못한다. 전시실 온도가 45°C에 이르는 것을 받아들일 작품 대여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미술관은 건물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내년에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진행한다. 사람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동선과 운영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이는 또한 보수공사를 위해 미술관이 문을 닫는 동안 우리의 활동 영역은 더욱 넓고 깊어지며, '어디에서나' 펼쳐질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관계의 역사로서 콩소르시움의 과거 50년을 보여주는 《Up Against the Walls!》는 중요한 연결고리들을 환기한다. 작가들을 연결하는 것은 특정한 스타일이나 미학이 아니다. 작가와의 관계를 새로운 작품과 전시로 발전시켜 온 콩소르시움의 방식이다. 이는 하나의 '가족'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자유로운 정신들의 자유로운 연합'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의 선언이나 규칙 아래 모인 집단이 아니다.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생각과 상황에 따라 다시 만나 협력하는, 유연하고 지속적인 연대체인 것이다.

